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최현**
이 용 교
이 춘 화
백 옥 현

- I. 대중매체의 이용시간
- II. 대중매체의 이용방법
- III. 대중매체의 통제
- IV. 청소년을 위한 대중매체

I. 대중매체의 이용시간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위력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보다 먼저 대중매체를 경험한 미국에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1960년에는 부모, 교사, 친구, 성직자, 청소년지도자, 대중스타, 친척 등의 순이었으나, 1980년에는 친구와 또래집단이 부모와 교사를 추월하여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부모 다음으로는 TV, 라디오, 영화 등 대중매체가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마리온 하워드, 1990: 187).

우리나라 부모들도 대부분이 “TV, 잡지 등의 매스컴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TV와 라디오를 도외시키고는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없고, 대중매체를 통한 여가선용의 긍정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중매체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가르쳐 주고, 다른 시청자들과 사회운동을 통하여 대중매체의 내용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한 승희외, 1990: 227).

한국방송공사의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16~19세 청소년이 대중매체를 이용

*이 논문은 본 연구원의 1991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을 위한 대중매체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공동연구자는 최현(연구위원), 이용교(주임연구원), 이춘하(연구원), 백옥현(연구원)임.

하는 평균 시간은 평일에는 2시간 18분, 토요일에는 3시간 57분, 일요일에는 5시간 9분이다.

그러므로 한해동안 16~19세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은 총 1,073시간 30분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 수치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방학기간이나 휴가 등 청소년들에게 여유있는 시간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실제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은 계산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매체가 무차별하게 안방을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접하는 시간은 더

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오락의 제공”과 “정보의 창”의 구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생활 시간조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중매체중 나이가 보다 어린 층은 TV를 선호하고, 나이가 많은 층은 상대적으로 라디오, 잡지·책, 신문의 구독시간과 영화·연극의 관람 및 감상시간이 증가되고 있다.

〈표 1〉

청소년의 일일 대중매체 이용시간

		TV	라디오	잡지·책	신문	관람·감상	계
평	일	1시간 16분	35분	15분	2분	10분	2시간 18분
토	요	2시간 36분	44분	22분	2분	13분	3시간 57분
일	요	3시간 34분	47분	31분	2분	15분	5시간 9분

자료 : 한국방송공사,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1991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양식을 보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갈수록 TV를 이용하는 시간은 절대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상대시간도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은 하루 두시간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을 주로 TV를 보는데 그치고, 주말에 여가시간이 날지라도 대부분은 TV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II. 대중매체의 이용방법

현대인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방송과 더불어

어 보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방송은 기능상 대량전달의 가능성과 감각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방송은 현대인들의 사회적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각종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이와같은 영향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이性に 관한 지식도, 재미있는 언어도, 멋있는 옷차림도, 우스운 태도나 행동도 모두 방송, 특히 TV를 통하여 보고 배우고 있다. 방송은 청소년에게 모방의 대상이고, 가치판단의 근거이며 자신의

소망을 설정시켜 주는 대상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더구나 그 영향력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떠한 사회와 기관보다도 강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매체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중매체 특히 TV를 볼때 사전에 그것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송법상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으로 나누었으나 프로그램은 방송의 기능에 따라 대개 보도와 교양, 교육 및 오락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대상에 따라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주부 프로그램, 농어민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 프로그램 포맷에 따라서는 비드라마 프로그램, 드라마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방송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해로운가 아니면 이로운가 하는 논쟁이 아직까지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방송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습주력자로서의 역할, 인생안내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동일시대상으로서의 역할이 있다(정원식, 1985: 4-10).

그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여기서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 학습과 시각에 미치는 영향, 독서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향에 미치는 영향, 건강과 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규현, 1987).

대중매체는 그것을 수용하는 대상이 없이는 성립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중매

체는 수용자와의 상호관계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방송은 수용자(시청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방송은 가장 광범한 폭넓은 영역을 가진 대중미디어인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문화로서 마치 현대사회의 신경조직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방송에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 즉 방송국과 시청자와의 관계는 단순한 송수신자의 관계를 넘어서 상호전달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시청자의 반응이 민감하고 반응방법이 용이하며 반응의 속도나 파급효과가 어느 미디어보다도 크다는 이유 이외에도 방송의 프로그램 구성자체가 어느 형식이든간에 시청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데에서도 그렇다(호현찬, 1986: 37).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의식은 일종의 자기표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TV의 등장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훈련시켰다. 교육수준의 발전, 의식의 고도화에 따라 시청자는 단순한 수신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자, 발언자, 비판자의 심리를 갖게 되었고 방송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려는 충동을 일으켰다(이신복, 1986: 8-9).

국민이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이하 이신복, 1986: 8-9). 그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참여형태는 방송매체의 소비자로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국민이 방송에 참여하는 유형은 단순한 시청행위만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 때의 참여형태는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구분된다.

직접참여는 시청자인 국민이 방송에 출현하거나 방청인으로 참가하여 직접 프로그램에 노출되거나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부터 있어왔던 노래자랑, 가족게임 등 시청자 참가 프로그램은 모두가 방송국의 필요에 의해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들로서 이러한 참여는 미디어가 주도권을 갖고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지 국민이 방송의 주체로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서 법적 보장을 받으려던 국민이 매스미디어로부터 수동적으로만 정보를 전수받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스 미디어에의 액세스권 *right of access*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매스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광장을 매스 미디어의 기능에 의존하고 또한 매스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총괄하는 이용권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실행 가능성이 주어진 수용자의 정보추구 능력의 한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제한적 이용권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매스 미디어에 공개됨으로써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에 침해 받은 자가 그 매스 미디어에 게재하여 반론, 변명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원우현, 1984: 241).

악세스권이 매스 미디어에 투영된 구체적인 활동은 첫째, 비판, 항의, 요구, 불만, 둘째, 의견광고, 셋째, 반론, 넷째, 지면, 프로그램 참가, 운영참가, 편집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악세스 프로그램은 지면, 프로그램 참가에 속한다. 악세스 프로그램은 시청자 쪽에 주도권이 있어야 하며, 특히 내용의 결정권이 있

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악세스 프로그램도 참가하지 않는 시청자 층들의 반발, 불만의 의견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악세스 프로그램의 개발은 절실한 문제라 할 수 있다(최창섭, 1991: 332-323).

간접참여는 국민이 방송에 대한 협력자로서, 비판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여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하는 참여 행위이다.

끝으로 공영방송체제하에서 국민이 방송에 참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이 직접 방송운영에 참여하는 방송이 공익에 봉사하도록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기구에 국민의 대표를 참여시켜 다양하고 균형있는 방송을 실시케 함으로써 방송문화라는 무형의 문화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고른 배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이신복, 1986: 9).

그러나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에 직접 참여하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생활권에서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대중매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아리는 같은 또래끼리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운영하는 모임체로서 성원들 교유의 감정과 생활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유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동아리활동을 대중매체 참여로 관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의아스럽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아리활동은 대중매체속에서 왜소해져만 가는 대인매체를 활성화시키고, 동아리는 성원 각자가 대중매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에겐대 학급신문이나 교회의 주보를 만든 사람이 갖는 신문에 대한 시각은 그러한 정형이 전혀 없는 사람과 다르고, 같은 논리로 학급문집, 교지의 편집경험은 상업잡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다. 최근에는 녹음기와 홈비디오 카메라 등이 대중화되어서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을 라디오와 TV프로그램에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점차 많아져가고 있다.

이처럼 동아리활동은 취미와 관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면집단끼리의 다양한 의사전달양식은 장치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것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개개인의 개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은 학교생활에 생동감과 즐거움을 불러 일으켜 준다.

이러한 동아리활동은 학교에서부터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가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민주사회를 창조해 갈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자치회가 살아나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국민학교고 중고등학교고 자치회란 것이 이름뿐이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학교에서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학급의 삶, 학교의 삶을 아이들 스스로 이끌어가고 창조해 가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에서 출발한다. 한 국가와 사회가 그런 것같이, 학교와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없이 학급사회 학교사회의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아이들을 해방하는 표현교육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인 동시에 그 사

회와 국가 전체를 살리는 기본이요 원천이 된다. 참교육의 길을 찾아가자면 억눌린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정서와 창조적 재능이 온갖 형태로 피어나도록 하는 표현중심의 교육이 모든 교육에 앞서야 한다(이오덕, 1990: 107).

III. 대중매체의 통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려고 한다면 아마 제1의 선생이라고 표현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매체의 심의나 통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발인가? 그것은 아니다. 제작자를 제외한 소수외에는 대중매체의 심의와 통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방송위원회, 1989). 문제는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닌 타율적 규제에 이르게 됨으로 분명한 기준과 현명한 방법 그리고 국민적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특히 대중매체를 접하게 되는 개인적 가치기준이 상이함은 물론이고 보수적 입장과 비판적 시각의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중매체에 대한 심의와 통제는 전 국민이 스스로 통제하는 것과 대중매체의 감시자가 되어 지적해주고 비판해주는 사회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치의 활용 등이다.

그동안 TV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학계는 물론 일반대중들도 많은 논의를 해왔다. TV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증까지도 나오게 되었지만(최선렬, 1985: 103),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사회에서 TV가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그냥 제거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 매체를 우리들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하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TV에 대한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미디어 수용자들은 전통적인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 역할로 태도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고 결정할 권리도 행사할 줄 아는 현명한 시청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청소년 수용자 스스로 대중매체를 통제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자기관리, 부모의 관심, 그리고 사회운동 등이다.

자기관리를 스스로 대중매체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시청자 운동은 시청자가 지역사회에서 선의의 압력단체를 구성하여 방송사에 대해 조언 또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이신복, 1986).

우리나라의 시청자 운동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여러 단체에서 토론회, 세미나, 모니터링 조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비교적 활발한 시청자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YMCA의 경우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청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텔레비전의 횡포에 대처하기 위해 「텔레비전 바로보기운동(TAT)」을 전개하고 이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부 텔레비전모니터요원을 모집, 양성하여 어머니들에게 시청자로서 프로그램 선별능력을 함양시키고 유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정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의 하나로 스포츠신문 건강성 회복 촉구 캠페인을 벌이며 스포츠신문 건전화를 위한 활동보고 대회 및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스포츠신문 음란 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스포츠신문들의 '도색 저널리즘' 근절을 내걸고 문제를 제기해온 강력한 독자운동 단체이다.

공대위는 <일간스포츠> <스포츠 조선> <스포츠 서울> 등이 근본적인 지면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형법상 음란문서판매죄와 미성년자 보호법상의 청소년에 대한 음란폭력물의 제작 및 판매죄로 고발할 것, 이들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광고제품 불매운동을 펼칠 것, 공대위 가맹기관의 회원을 중심으로 스포츠신문들의 모지인 <한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과 이들 발행사에서 낸 잡지 안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근원은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0조, 제17조, 제21조, 그리고 제22조인데 각조별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정신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에 좋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가 대중매체별로 실시되는데, 그 심의기관으로는 방청심의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등이 있다.

방송법의 경우에 제1장 총칙, 제5조(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6항에서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 퇴폐,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V. 청소년을 위한 대중매체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1.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조사연구하자.

한국방송공사는 1981년부터 매 2년마다 “과학적인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부의 정책수립 및 사회일반의 각 분야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국민생활시간조사」를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나 청소년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이점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의 조사연구를 보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 일은 문화부나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고 국민생활시간조사와 같이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 2.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중매체의 활용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자.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국민학교에서부터 대중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일반 교과목의 수업이 대체로 종결되는 방학직전이나 학년말에 「대중매체학습주간」을 설정하여 「대중매체교실」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대중매체교실에서는 대중매체의 올바른 활용법을 전문가의 강연, 시청각 교육, 사례발표, 토론, 견학 등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매체교실」에 필요한 교과과정은 산하에 교육방송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 3. 방송국, 신문사 등 대중매체의 공급자들이 청소년을 위한 대중매체 교육을 실시하자.

대중매체가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대중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질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대중매체는 그 이유를 소비자인 대중에게 전가시켜왔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방송국은 「정보데이트」와 같은 양식 등으로 「대중매체 활용법」을 제작하여 청소년 이용시간대에 연중 방영하고, 신문사는 신문에 고정란을 두며, 본격적인 대중매체교육은 교육방송을 통해서 방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재생시키거나, 재편집해서 일선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에 실비로 대량 보급하는 것이 요청된다.

제안 4. 학교에서 학교방송, 학교신문, 교지, 학급 문집 등 교내 대중매체를 활성화시키자.

대중매체는 단순히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대중사회에서 청소년은 대중매체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중매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교실마다 있는 게시판과 학교마다 있는 교지와 학교방송 등은 학교라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훌륭한 “대중매체”일 수 있다. 또한 최근 여러 학교에서 일선교사와 학생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는 학급문집의 발간, 학교 신문의 발간 등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학교당국은 이를 억압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장려하고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공간, 시설 그리고 비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내의 여론을 조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학생회의 활동을 장려해야겠다. 교내의 민주화와 교내의 대중매체의 활성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안 5. 학교에서 각종 동아리활동을 장려하자.

대중매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일반적으로 몇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의사전달의 폭이 “대인매체”에서 “대중매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모임활동의 경험이 요구되는데, 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이 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대개 동아리는 취미와 관심에 의해서 성원들이 충원되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은 취미생활과 함께 시민생활을 익히게 한다. 아울러 방송반, 신문반, 편집부, 사진반, 영상반 등의 활동은 교내 대중매체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장차 우리사회의 대중매체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교칙과 학생회칙에 동아리활동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개별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야겠다. 현재의 학교제정상 모든 동아리활동에 재정보조가 어려우면, 동아리 연합축제 등 연합행사만이라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생회비가 학생지도 활동보다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많이 쓰

이도록 하여야겠다.

제안 6. 방송국, 신문사 등 대중매체의 공급자들은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현재도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 독자투고, 신창곡 엽서 발송, 공개방송 방청 등의 방식으로 대중매체에 참여하고, 방송사, 신문사 등이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직접 참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에 비교할 때 중·고등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경연대회는 매우 적고, 더욱이 중학생들에게는 그 기회가 매우 적다. 각종 대중매체는 수용자이고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컨대, 내가 찍은 비디오, 우리가 본 우리들의 생활뉴스 등), 특히 경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대중매체 공급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학교, 직장,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될 때 생기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대중매체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중·고등학생의 지역단위 동아리축제 등 연합축제에 협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제안 7.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가정용 대중매체 활용 지침서를 개발하자.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행태는 대부분 부모의 대중매체 이용행태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TV바로보기라든가 대중매체를 생활의 소식통으로 활용하는 것 등은 부모가 술선수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모들의 세대는 대체로 어린이 시절에 대중매체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학교 등에서 대중매체 활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매체 활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가정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침서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청소년연구원, 문화발전연구소, 방송개발원, 교육방송국 등 관련된 기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점에서 최근에 나온 「신문소프트」 등은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안 8. 대중매체에 대한 청소년 모니터 모임을 지역단위로 발전시키자

현재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 모임은 TV감시에 집중되어 있고 신문, 잡지에 대한 감시를 비교적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비디오, 만화, 영화, 유선방송 등에 대한 감시활동은 매우 부진하다.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활동이 서울지역과 몇몇 대도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서울 지역에서조차도 지역사회단위로는 일과성 캠페인 정도에 불과하다.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를 대중매체별로 특화시켜서 고루 발전시키고 청소년 모니터 모임을 조직하여 청소년의 시각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며, 지역사회의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불량 대중매체 퇴치를 위한 사회운동을 발전시켜야겠다. 특히 비디오, 유선방송, 만화, 전자오락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시활동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안 9. 방송심의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 각종 대중매체 심의위

원회에 청소년을 참여시키자.

대중매체에 대한 각종 법적·제도적 통제기관은 위원회의 성격을 띄고, 주로 사회저명인사와 대중매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위원회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을 통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청소년의 대표가 그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전국 단위 청소년단체의 대표나, 대중매체에 대한 청소년 모니터 모임의 대표 등이 그 위원으로서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하려면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청소년은 단순히 건전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은 올바른 성장의 주체이다. 대중매체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단순히 소비자나 수용자가 아니라, 대중매체의 생산자이고 창조자일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와 사회는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그들의 창조력을 억압하여 왔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속 마음을 스스로 말하고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줄 때만이 참된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학교내 동아리활동과 교내 대중매체의 발전없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대중매체는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달아 청소년들이 생활권 대중매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성호(1987), “교육이념과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연구 여림호, 방송위원회.

- 김 규(1986), “공영방송과 시청자”, 방송연구 가을호, 방송위원회.
- 김 규·최창섭·전화성(1984), ‘방송심리학 연구서설’, 서강인문연구논문집 14.
- 김 규 편저(1989), 텔레비전환경론, 나남.
- 도종수의(197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마리온 하워드 지음,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실 옮김(1990), 당신의 10대 자녀들이 성적인 고민에 빠지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 한겨레.
- 문화방송(1991), '91 MBC청소년백서.
- 미래사(1988), 이땅의 아이들과 함께, 미래사.
- 박성주(1985), “청소년과 방송문화사업”, 방송연구 여름호,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1991), 방송 '91, 1~8월호.
- 방송위원회(1991), ‘방송과 시청자’ 9~11월호
- 서성욱(1987), “어린이를 위한 텔레비전 시청지도”,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 원우현(1984), 매스 미디어와 문화발전, 범우사.
- 윤 진(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광훈(1983), “청소년대상방송과 고정관념의 벽”, 방송연구 여름호, 방송위원회.
- 이근삼(1985), ‘TV드라마와 청소년’,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 이상희·유재홍(1988), “TV 프로그램 시청동기와 민족에 대한 조사—TV 시청형태와 시청후 반응에 대한 심층분석”, 한국방송연구, KBS.
- 이선미(1983), 텔레비전시청자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복(1986), 국민의 방송참여체제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조사연구보고서 제 9집, 방송위원회.
- 이오덕(1989),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한길사.
- 이정준(1984), 참교육으로 가는 길, 한길사.
- 이정훈(1984), 현대사회와 매스 미디어, 전예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1992), 교사용 특별활동 지침서, 미래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1990), 학생자치활동 1, 푸른나무.
- _____ (1990 b), 학생자치활동 2, 푸른나무.
- 정보성·신문소프트(1991)
- 정원식(1985), “청소년의 미래와 방송의 사명”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1991),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천지.
- 차배근(1986), “방송 수용자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방송연구 가을호, 방송위원회.
- 최선렬(1985), “청소년과 미디어 교육”,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 최창섭(1985), 미디어 교육론, 나남.
- 최창섭(1990), 방송총론, 법문사.
- 최창섭(1984), “텔레비전의 환각에서 깨어나자” 월간조선 11월호.
- 최현섭(1985), “바람직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 푸른나무(1988, a), 푸른나무이야기모임
- 푸른나무 2(1988, b), 푸른나무이야기모임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1989), 출판문화—나아가야 할 길, 간행물 윤리 세미나 문집.
-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1989), 밥먹으며 시계보

고 시계보며 또 먹고, 사계절.

_____ (1989), 아이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교실, 한길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8),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

한국방송공사(1991),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한국방송공사·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1987), 전국 TV, 라디오 시청형태 및 의견조사.

한국사회언론연구회(1990),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 아카데미.

한승희외(1990),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청소년연구원.

한진만(1986), “각국의 시청자 운동”, 방송연구 가을호, 방송위원회.

호현찬(1986),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방송연구 가을호, 방송위원회.